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Leningrad'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통과한 인간의 존엄과 예술의 의미를 음악으로 성찰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헤리티지 시리즈' 네번째 무대 오는 10일 소프라노 홍혜란 협연 전쟁 맞선 인간 존엄 의미 되새겨 광주이어서울 '교향악축제' 무대도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창단 50주년 기념 헤리티지 시리즈 무대이자 405회 정기연주회 'Leningrad'를 선보인다. 사진은 광주시향 공연 모습(왼쪽)과 소프라노 홍혜란.



쇼스타코비치 '레닌그라드'로 만나는 거대한 교향 서사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병욱)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05회 정기연주회 'Leningrad(레닌그라드)'를 연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최대 클래식 축제인 '2026 교향악축제' 초청 프로그램으로, 광주 공연에 이어 12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향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Heritage Series(헤리티지 시리즈)' 네 번째 무대이기도 하다. 광주시향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음악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선보이고 있는 시리즈다. 헤리티지 시리즈는 앞서 신년음악회 '만남'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박재홍 협연의 'Nr.2', 피아니스트 박종해 협연의 '보헤미아의 봄'이 이어졌으며, 이번 정기연주회 '레닌그라드'가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레닌그라드 기억'이다. 전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통해 전쟁과 폭

력의 시대,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며, 광주시향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1부에서는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7개의 초기 가곡'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베르크가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 피아노 반주 가곡으로 작곡한 곡들을 1928년 관현악으로 편곡해 출판한 작품으로, 후기 낭만주의적 서정성과 표현주의적 어법이 결합된 작품이다. 베르크는 피아노 반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색채와 분위기 효과를 관현악으로 확장하면서 전통 독일 가곡의 서정성을 새로운 음향으로 재해석했다. 작품은 자연과 꿈, 사랑 등 낭만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현악·목관·금관의 섬세한 배합을 통해 갈대의 흔들림이나 밤의 어둠, 새의 울음, 여름의 빛과 같은 시적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그려낸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홍혜란이 협연자로 나선다. 홍혜란은 2011년 킨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성악가다. 뉴

욕타임스로부터 '빛나는 목소리를 가진 가장 뛰어난 신예'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국내외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부에서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의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가 연주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배경으로 작곡된 대규모 교향곡으로, 전쟁의 공포와 이에 맞선 인간의 생존 의지와 연대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20세기 교향곡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거대한 사운드와 장대한 구조를 통해 전쟁의 긴장과 저항의 서사를 음악적으로 펼쳐낸다. 지휘자 이병욱의 치밀한 해석과 광주시향의 응집된 에너지가 어우러져 웅장한 음악적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YES24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근현대사 흐름 속 광주·전남 미술 조망

오는 8일부터 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광주시립미술관이 2026 미술관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예향의 맥(脈) : 한국근현대미술 속 광주를 읽다'를 주제로, 미술사학자 조은정 고려대 초빙교수를 초청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5강으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 한국미술의 흐름을 짚고, 광주·전남 미술이 중앙 화단과 교

차하며 형성해온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미술의 맥락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시대 미술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 강의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미술의 주요 사조와 쟁점을 시대순으로 다룬다. ▲1강 '근대를 열다 - 시각 체계의 변화'를 시작으로 ▲2강 '희망과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광복과 전쟁, 재편되는 미술계' ▲3강 '사회를 반영하는 미술 - 앵포르멜의 실상과 새로운 미

술들' ▲4강 '형상미술과 민중미술 - 주변부의 식에서 역사의 주체로' ▲5강 '세계화, 국제화, 다문화 - 민족미술에서 동시대 미술로'가 이어진다. 각 강좌는 시대 변화 속에서 광주·전남 미술의 대응과 전개를 함께 짚는다. 오는 8일 열리는 첫 강의 '근대를 열다 - 시각 체계의 변화'에서는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국미술의 시각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핀다. 한편 강좌는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무료 운영된다. /최명진 기자



매혹적인 탱고 선율, 광주 무대에서 펼쳐진다

양상블 '카스타냐 탱고'...5일 광주예당 아르헨티나의 정취와 탱고의 서사를 한 무대에 담아낸 공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탱고 앙상블 카스타냐 탱고(사진)의 공연 '탱고 카페'가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아르헨티나의 극장 겸 카페를 의미하는 '탱고 카페'를 모티브로, 그 공간을 채웠던 마에스트로들의 음악을 라이브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세월이 묻은 공간의 분위기와 음악, 이야기가 어우러지며 탱고의 정서를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카스타냐 탱고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을 중심으로 피아노 조영훈, 반도네온 김종원, 더블베이스 김유성, 비올라 박용은, 첼로 박성근이 함께하는 6인조 편성이다. 음악감독을 맡은 김아람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10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체득한 탱고의 감각과 분위기를 이번 공연에 담아낸다. 공연에서는 여섯 연주자의 완성도 높은 앙상블과 함께 각 곡의 서사를 설명하는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이 탱고 음악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명진 기자

특히 이번 무대에는 광주 출신 반도네온 연주자 김태은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카스타냐 탱고와 함께 '데카리시모', '쁘르테니시마'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전남 청년예술가 활동지원사업 추진 전남문화재단, 오는 3일까지 공모 접수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전남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 청년예술가 활동지원사업' 정식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창작 경험이 없는 예비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지원' 트랙을 새로 마련해 멘토링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연속지원(2년) 트랙은 지원금을 상향했다. 또한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연속지원 트랙의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www.kjdaily.com

시내 지역: 중앙지국 222-8171, 산수지국 224-4188, 학운지국 673-6836, 화정지국 372-9140, 금호지국 376-7153, 풍암지국 603-0311, 노대지국 674-3581, 상수지국 453-2554, 광천지국 374-2120, 진월지국 676-2726, 봉선지국 673-6836, 백운지국 673-0123, 두암지국 266-1920,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가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하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문흥지국 261-9462, 일곡지국 573-3200, 첨단지국 971-7374, 치명지국 371-9584, 수원지국 955-0451,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목포지사 061)270-8689, 동문포지사 061)278-0740, 남문포지사 061)245-3797, 신안지사 061)980-8300, 순천지사 061)746-1600,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지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구례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8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보성지사 061)852-6644, 화순지사 061)373-7795, 장흥지사 061)863-6800, 강진지사 061)432-8899, 해남지사 061)535-5849, 영암지사 061)473-7151,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